

주말·휴일 3주째 '엔터리 예보'

“또 속았다” 시민들 분통

기상청의 오락가락한 날씨 예보가 시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이달 들어 연이어 주말·휴일 날씨 예보가 빗나가는 등 기상청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광주·전남 3주째 주말·휴일 예보 빗나가=지난 25일 광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26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일요일(27일)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예상 강수량은 5~10mm”라고 예보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무더운 날씨와 함께, 비는 일부 지

역에만 1mm 안팎이 내리는데 그쳤다. 더구나 광양에는 27일 낮을 기해 폭염경보가, 나주·진도 등 전남지역 11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불볕더위를 보였다.

광주기상청은 지난 19일에도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달게는 60mm까지 비가 내린다고 했지만, 대부분 지역이 10mm 안팎의 적은 비만 내렸다. 기상청은 또 지난 20일 예상 강수량을 30~120mm까지 예보했지만 보성과 곡성 등 일부 지역에만 30mm 안팎의 비가 내렸을 뿐, 다른 지역은 거의 비가 오지않았다.

특히 지난 12일 광주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날씨를 “고기압의 가장자리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상 오보 사례

날짜	예보	실제 날씨
7월 12일	호림	최고 50mm 비
7월 19일	최고 60mm 비	10mm 안팎 비
7월 20일	최고 120mm 비	10~30mm 비
7월 26일	5~10mm 비	대부분 지역 비 안와

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다”며 비 소식이 없다고 예측했다가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50mm까지 폭우가 내려 시민들이 낭패를 보기도 했었다.

3주째 주말·휴일 예보가 빗나간 광주·전남지역은 나온 편이었다. 타 시·도에서는 기상청의 주말 날씨 예보가 최대 5주 연속 빗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지난 25일 경기북부지역에 25~26일 10~4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동두천은 25일 33mm, 26일 78.5mm 등 이틀간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렸다.

▷시민들 “짜증난다”=이처럼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었다. 비 소식에 하루종일 우산을 들고 다녔지만 하늘은 쾌청했으며, 예보를 듣고 휴가를 잡았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박광수(28·광주시 남구 송하동)씨는 “주말·휴일 비가 온다고 해서 휴가 계획을 잡지 않았는데 또 속았다”며 “외국 예보관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다던데 자주 이상 기후 탓만 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여름에는 한반도에 태풍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느냐에 따라 강수량의 변동 폭이 커지는데 변화무쌍한 성격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섬진강 래프팅 비가 올 것이란 예보와 달리 30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찾아온 27일 오후 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 청소년들이 곡성군 옥곡면 섬진강에서 래프팅(Rafting)을 즐기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양에 폭염경보, 나주·진도 등 11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으며, 광주의 최고기온도 32.7도를 기록했다. /위재량기자 jrwi@kwangju.co.kr

중부·영남 '물폭탄' 12명 사망·실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서울·경기와 강원, 영남 등지에 많은 비가 내려 27일 낮 12시 현재 7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폭우로 영동선 철길 독이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쳐 우모(80)씨 모녀가 숨지는 등 봉화군에서 서민 모두 4명이 호우로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강원 양구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병사 2명이 매몰돼 숨지는 등 이번 호우로

전국에서 모두 7명이 숨졌다.

또 경북 봉화에서 무숙인 2명이 하산중 실종되는 등 모두 5명이 실종됐으며, 경기 의왕시 오전동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6명이 부상했다.

이와 함께 이번 비로 주택 45채가 파손되고 573채가 침수돼 1천29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농경지 187ha가 유실 또는 매몰되고 1천311ha의 농지가 물에 잠겼다.

이 밖에 도로 33곳과 철도 4곳, 하천 및 소하천 43곳이 유실 또는 침수됐다. /연남뉴스

광주·전남 물놀이 사고 잇따라

주말과 휴일인 26일과 27일 전남지역 유원지 등에서 물놀이 사고 등이 잇따랐다.

27일 오후 2시40분께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 인근 계곡에서 전모(35·경기도 일산시)씨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중태다.

전씨는 이날 가족 등과 함께 계곡을 찾다가 강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폭 10m 남짓한 강을 건너던 중 바닥이 갈라져 패인 곳에서 발을 헛디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5시10분께 영광군 염산면 축터리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모(68)씨가 3m 아래의 농수로로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또 지난 26일 오후 2시23분께 화순군 이양면 응두리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모(13)군이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구조대원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군이 수영 미숙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해파리 '주의보'

피서객·어장 등 피해 잇따라

여름철 바닷가 불청객인 '해파리'의 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신안군 대흑산도 인근에서 해저 생태를 조사중이던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연구원 이모(40)씨가 해파리에 목부위를 쓰여 인근 보건소로 옮겨졌다.

이씨는 응급치료를 볼수,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자 해경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에는 여주시 봉계동 바닷가에서 피서객 허모(39)씨가 물놀이를 하던 중 해파리의 공격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정격히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했다. 해마다 피서철이면 해파리 공격이 끊이지 않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도 이달 들어 40여명의 피서객이 해파리에 쓰여 상처를 입었다. 해파리때 공격에 수산 당국은 분주한 모습이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은 해파리때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해 피서객과 어장 보호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피해방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민간단체 활동도 활발해 전국 어민과 해양·수산·대학 관계자 등 200여명은 최근 여수에서 가칭 '한국 해양유해생물방제조합중회 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유해생물 피해방지 활동을 본격화했다. 국립수산물과학원 관계자는 “일단 해파리에 쓰이면 맨손이 아닌 수건 등으로 떼어낸 뒤 바닷물로 씻고 항비타린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면세유 수익원대 불법 유통

주유소 업자·어민 실행 선고

초고유가 속에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주유소 업자와 어민에게 법원이 실행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임형래 판사)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 20만6천800여ℓ(시가 2억5천700여만원)를 양식 어민에게 공급받아 일반 과세유로 판매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주유소 업자 김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주유소 관계자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여수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측에 제공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양식 어민 백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소 업자 김씨는 면세유를 일반 과세유로 팔아 상당한 이익을 챙겼고, 주유소 관계자 이씨와 양식어민 백씨도 그 이익의 일부를 나눠가진 점이 인정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도박판서 잃은 돈 찾으려

등창생 4명이 집단 폭행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도박판서 잃은 돈을 찾기 위해 상대 방을 폭행하고 관 돈을 빼앗은 박모(33)씨를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동창생들인 박씨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10분께 나주시 한 모텔에서 김모(34)씨와 숙청 ‘바둑이’ 포커게임 도박을 하던 중 관 돈을 날리자 “사기도막이다”며 김씨를 집단 폭행해 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다중의 건국 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구사시 지력 및 상담만점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점 : 061) 337-0571

택시서 빚쟁이 만나 환기 폭행
 ○우연히 택시의 운전기사가 수년 전 수천만원을 때어먹은 빚쟁이라는 사실을 안 30대가 주먹을 휘두르고 택시를 빼앗았다가 검찰청.
 ○순천경찰청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께 순천시 연향동에서 택시기사 이모(35)씨를 마구 때리고 이씨가 달아나자 혈중알코올 농도 0.29% 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간 뒤 차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과 휴대 전화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고향 후배 배모씨와 함께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9년 전 4천만원의 빚보증을 서줬으나 때어먹은 채 무자라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행.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김씨를 붙잡았으며, 달아난 김씨의 후배 배모씨의 뒤를 추적 중.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맛있는 음식, 저렴한 가격
박지분당
 011-4604-5229

부개은통용인대 한발사양부 www.bujagood.com
아직도 고가의 온돌침대를 목돈으로 구입하십니까?
 할부식 렌탈서비스 - 월평균 50,000원~60,000원대 [무이자 36회 까지]
보상판매 실시 온돌침대를 구입 시 현재 사용하는 침대(베드리스)를 보상판매
 (11월 50,000원 구입 시 100,000원 보상, 12월 50,000원 구입 시 100,000원 보상)

국내 최고 브랜드 온돌 & 온돌침대를 할부식 렌탈해 드립니다.
원하는 층수대로 카리스마 침대를 드립니다.
국내 최대 렌탈사로 언제든지 월납 서비스 침대를 드립니다.
촉 OPEN 기념
 TEL: 062) 961-9994